

평창동계올림픽 G-88

# 김연아 “총을 거두자”... 유엔서 평화의 외침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보조 발언  
도종환 장관 “전 세계 평화올림픽 방침”



김연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2010 밴쿠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7)가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외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2일 우리 정부대표단인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the Olympic Truce Resolution for PyeongChang)’ 채택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연아 등 정부대표단 10명은 현지시간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세계 평화와 올림픽 성공을 위해 목소리

를 낼 예정이다. 이회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소개발언과 김연아의 보조발언에 이어 결의안 채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 대표단은 유엔 출입기자들과 현지 주요 언론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해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sport and the Olympic ideal)’이란 제목의 올림픽 휴전결의안에는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이후 7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1993년 이후 올림픽이 열리는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선수, 임원들이 안전하게 동행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결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회원국들간의 문안 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도종환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 휴전결의안 지지를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은 전 세계에 평화올림픽의 방침을 찍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2003년 1월 이형택 이후 14년 10개월 만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우승이다.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이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생애 첫 ATP투어 정상에 오른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밀라노(이탈리아) | AP뉴시스

## 한국선수 14년10개월만에 정현, ATP 투어 정상 등극

넥스트젠 파이널서 첫 우승... “평정심 V 비결”

평정심을 유지한 덕분에 값진 열매를 수확했다. 한국 선수로는 14년 10개월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우승을 일군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54위)이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은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결승에서 세계랭킹 37위 안드레이 루블레프(20·러시아)를 3-1(3(5)-4 4-3(2) 4-2 4-2)로 제압해 우승을 차지했다. 정현이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그의 투어 대회 최고 성적은 올해 5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BMW 오픈 4강이었다. 한국 선수가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3년 1월 이형택(41)이 아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한 이후 14년10개월 만이다.

정현은 시상식 후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감격해 하면서도 “좋은 경기를 펼친 루블레프에 격려를 보낸다”고 패자에 대한 예의도 갖췄다.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준 정현은 2세트에서 한층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흐름을 가져왔다. 분위기가 정현 쪽으로 흘러가자 루블레프는 라켓을 코트에 집어던지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 정현은 루블레프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3~4세트를 내리 때내 우승을 일궜다.

ATP 공식 홈페이지는 “정현이 5전 전승을 거두며 완벽한 우승을 일궜다”며 “루블레프는 ATP 투어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 정현은 투어 레벨에서 4강까지 오른 것이 전부였다. 정현은 피에라 밀라노 코트가 가득 찬 중앙감 속에서 루블레프보다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현은 “1세트를 내주고, 2세트에서도 초반에 브레이크를 당해 화가 많이 났다”며 “하지만 평정심을 가지고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우승 비결을 털어놨다.

올해 5월 자신의 투어 대회 최고 성적과 정적을 거두고,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는 처음으로 3회전 무대도 밟았던 정현은 시즌 마지막 대회를 기분 좋은 우승으로 마감하며 올 시즌을 끝냈다. 이번 대회는 21세 이하 선수들 중 세계랭킹 상위 8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올해 처음으로 치러졌다. 정현은 초대 챔피언에 오르면서 세계 테니스계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정현은 “생각보다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y@donga.com

## 이승훈, 평창 매스스타트 금 예약

팀 추월·매스스타트 우승 'ISU 월드컵 2관왕'

이승훈(29·대한항공)이 올 시즌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이승훈은 12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인도어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이스 중반까지 체력안배를 하다가 레이스 후반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고 결승선을 앞둔 곡선주목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 1위로 끝나는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줬다. 이승훈은 전남 김민석, 정재원과 함께 남자 팀추월에서 우승한데 이어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승훈은 평소 “매스스타트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평창에서 초대 올림픽 챔피언이 된다면 그보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평창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여자 매스스타트 예선전에서 넘어진 김보름(24·강원도)은 다행히 부상을 당하지 않아 월드컵 2차 대회에 정상적으로 출전한다.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빙속여제’ 이상화(28)는 11일 같은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36초60을 기록해 라이벌인 일본 고다이라 나오의 37초 29에 아쉽게 0.31초 뒤져 2위를 기록했다. 고다이라씨는 지난 2016~2017 ISU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 종목에서 8차례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새 시즌 첫 월드컵도 우승하며 평창올림픽에서 이상화와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다.

이경호 기자

###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농구 <12월>						
●2017-2018 정관장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SK	13	11	2	0.846	4승
2	DB	11	8	3	0.727	2승
3	전자랜드	13	8	5	0.615	3승
4	KCC	13	8	5	0.615	3승
5	인삼공사	12	6	6	0.500	4.5승
6	삼성	13	6	7	0.462	5승
7	현대모비스	13	6	7	0.462	5승
8	LG	12	5	7	0.417	5.5승
9	오리온	12	3	9	0.250	7.5승
10	kt	12	1	11	0.083	9.5승

  

●경기결과						
10일	인삼공사	80	35-22, 22-25, 28-22, 19-20	99	KCC (7승5패)	
10일	LG	81	47-22, 24-21, 18-29, 16-17	87	SK (10승2패)	
11일	현대모비스	70	28-17, 11-23, 24-21, 18-22	78	삼성 (6승7패)	
11일	DB	82	39-24, 25-15, 28-14	73	kt (1승11패)	
11일	전자랜드	80	44-21, 23-18, 13-10	71	오리온 (3승9패)	
12일	SK	105	41-15, 26-21, 23-23, 18(연장) 17	104	현대모비스 (6승7패)	
12일	인삼공사	80	42-17, 25-19, 15-11, 18-13	71	LG (5승7패)	
12일	KCC	83	39-24, 21-19, 23-19	76	전자랜드 (8승5패)	

여자프로농구 <12월>						
●2017-2018 신한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KB스타즈	5	4	1	0.800	0승
2	삼성생명	5	3	2	0.600	1승
3	우리은행	4	2	2	0.500	1.5승
4	KEB하나	4	2	2	0.500	1.5승
5	신한은행	5	2	3	0.400	2승
6	KDB생명	5	1	4	0.200	3승

  

●경기결과						
10일	신한은행	71	29-18, 11-11, 33-10, 9-18	54	KDB생명 (1승3패)	
11일	KEB하나	71	28-11, 17-13, 21-19, 22-22	68	KB스타즈 (4승1패)	
12일	삼성생명	88	46-26, 20-11, 15-25, 27-17	70	KDB생명 (1승4패)	

  

프로배구 <12월>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IBK기업은행	6	4	2	12	549
2	도로공사	6	3	3	12	563
3	현대건설	6	4	2	11	555
4	인삼공사	6	3	3	9	581
5	흥국생명	7	2	5	7	568
6	GS칼텍스	7	3	4	6	622

  

●경기결과						
11일	인삼공사	0	22-25, 14-25, 20-25	3	IBK기업은행 (4승2패)	
12일	GS칼텍스	0	25-27, 20-25, 23-25	3	흥국생명 (2승5패)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삼성화재	7	5	2	14	668
2	KB손해보험	8	5	3	14	776
3	현대캐피탈	7	4	3	12	616
4	한국전력	7	3	4	11	611
5	우리카드	8	3	5	9	763
6	OK저축은행	8	3	5	9	770
7	대한항공	7	3	4	9	647

  

●경기결과						
10일	삼성화재	3	25-20, 25-20, 23-25, 23-25, 15-10	2	대한항공 (3승4패)	
11일	OK저축은행	1	25-20, 15-25, 22-25, 21-25	3	현대캐피탈 (4승3패)	
12일	우리카드	1	18-25, 25-20, 17-25, 28-30	3	KB손해보험 (5승3패)	

  

GOLF <12월>						
●PGA TOP10						
OHL 클래식 2라운드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①	키지(미국)	-10	① 로저스(미국)	-10	① 파올라(미국)	-10
②	게이(미국)	-9	② 하킨스(미국)	-9	② 오다(미국)	-9
③	하벨(미국)	-8	③ 무어(미국)	-8	③ 녹스(스코틀랜드)	-8
④	필리(미국)	-8	④ 김시우(한국)	-7	④ 김민휘(한국)	-6

  

NBA <12월>						
●경기결과						
11일	뉴올리언즈	111-103	LAC	뉴욕	118-91	세크라멘토
11일	골든스테이트	135-114	필라델피아	유타	114-106	브루클린
11일	클리블랜드	111-104	댈러스	덴버	125-107	올랜도
11일	휴스턴	111-96	멤피스	밀워키	98-90	LAL
11일	피닉스	118-110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133-94	시카고
11일	워싱턴	113-94	애틀랜타			

아마추어 경기결과 <12월>						
<b>축구</b> ●2017 U리그 왕중왕전(전남 영광) ●16강=건국대 3-2 승산대, 수원대 2-1 조산대, 동국대 3-1 삼지대, 고려대 1(PK 5-3) 1부경대, 광주대 0(PK 3-1) 인천대, 용인대 5-1 대구대, 단국대 1-0 서울사이버대학교대, 전주대 3-1 경희대						
<b>테니스</b> ●2017년 춘천오픈 테니스대회(춘천 송암국제테니스장) ●남자 단식 본선 결승전=이재문(부천시청) 2-0 나정웅(대구시청) ●여자 단식 본선 결승전=황아리(용인시청) 2-0 안유진(한체대)						
<b>배드민턴</b> ●2017 마카오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마카오) ●남자 복식 결승전=정민(인천시청) 2-0 서승재, 김원호(한국) ●여자 복식 결승전=황아리(용인시청) 2-0 안유진(한체대) ●혼합 복식 결승전=정민(인천시청) 2-0 서승재, 김원호(한국)						
<b>탁구</b> ●2017 ITTF 월드컵투어 플래티넘 독일오픈(독일 마그데부르크) ●남자 단식 본선 2회전=이재문(부천시청) 4-3 미즈타(일본), 마츠다(일본) 4-1 정상은(한국) ●남자 복식 본선 3회전=정민(인천시청) 3-1 유지영(중국), 임시우(중국)						
<b>양궁</b> ●2018년 국가대표 제1차 선발전(광주광역시 남구 국제양궁장) ●남자부 6회전=① 김정민(충원대), ② 양영호(청주시청), ③ 민리훈(경북양궁협회) ●여자부 6회전=① 이혜림(서울고교), ② 오지은(울산남구청), ③ 오유연(전북도청)						

  

경기 예고						
<b>여자프로농구 &lt;13월&gt;</b>						
●2017-2018 신한은행 WKBL						
우리은행 <아산이순신>		KEB하나				
오후7시, KBSN스포츠						
<b>아마추어 경기예고 &lt;13월&gt;</b>						
<b>축구</b> ●2017 WK리그(이천종합, 오후7시) ●플레이오프=이천대교-화천KSP						
<b>농구</b> ●2017-2018 KBL D리그(고양보조) ●전자랜드-SK(오후1시30분), 오리온-성무(오후3시30분)						